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2□(□)~14□(□) □□□□□□ □□□ □□□□ □□□ 20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개항장 예술축제
INCHEON OPEN PORT ARTS FESTIVAL

2018. 10. 12~14일
인천아트플랫폼, 신포동

일	시간	장소
12	19:00	인천아트플랫폼
13	19:00	인천아트플랫폼
14	19:00	인천아트플랫폼



<2018 韓國國際 韓國>
韓國

2018 韓國國際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100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韓國



00 00 0

000000 000 000000 00 000 000 000 0 00 000 00000 '000000 00'0 000
0000, 000000 000000 0 00 000 000 00 000 00000 '00 000 00', 000 00
00 00000 0 000000 00, 000 000000 000 0 00000 000 00 00000 00000.
00 000 '0000 00' 000 '00000 00'0 0000 00. 00 000 000 000 000000 00
000000 00 00 000000 000 000000000, 000000 00000 00 0 00, 00 00000 000
000 00 00 00 00000. 0 000000 000 40 000 00 000 00000.



0000 0

0000 0000 '0000 000 00'0000 0000 000 0000 00000. 00 000000 0000 000 00000 0
00 0 0000 0000. 00 0000 000 0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0 0 000 0000 0 0 0000 350000 0 000000 000000 0000 000, 00 000000 000000
0 0000.

0000 00 0000 0000 0(0)0000 0000 00000 0000 0000 000 0000 0 000 0000 00. 00
0 0000 0000 0000 00000 00. 0000 00 000000 00000000 00000000 00 0000 00
0. 0 0000? 0000 00 000000 00 00 0000 0000. 00 0000 0000 0000 00000000 00000
0000 0000 00 00 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0000 000000 00 0000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0000. 000000 000000 00 0000 0000 00 0000 000, 0000 0000 00
00 00.

00 00000000 000000 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00. 0 0 0000 0000 00000000 00 0
00 0 000000 0000 00 00. 000000 0000 0000000000000000 00 000000 0000 00000000 00
0000. 00 0(0)0 00000000 0 0 0000 000000 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0
0000 00000000 0000 00 00 000000 00. 0000 0000 000000 000000 0000 00 0000 000000
00000000 0 0 0000 0000 00.

2005 年 10 月 15 日 星期一 10:00 分 20 分 会议

2005 年 10 月 15 日 星期一

2005 年 10 月 15 日 星期一 10:00 分 20 分 会议 <···> 会议

会议时间: 2005 年 10 月 15 日 星期一 13:00 分 会议。

2005 年, 10 月 15 日 星期一 10:00 分 20 分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1,000 会议 会议 会议 会议(会议)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会议 5 会议 会议.

▶ 문화/생활 > 공연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인천 온다

1월 31일 '문화바람' 첫 번째 콘서트

이영주 기자 | inpress@inmail.net

2006.01.11 17:23:13



백창우(좌)와 굴렁쇠 아이들

지난 달 15일 새롭게 창립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대표 임승권)가 올해 첫 번째 공연으로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의 중요콘서트를 '노래야 나오나라'를 개최한다.

백창우씨는 시인이자 음악인, 프로듀서로서 1980년 불혹집 음반 <시인/인생> 발표 이후 20여년간 내겐의 시집과 13장의 작곡집, 20여 장의 중요음반을 출간했으며 198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전용 음반사 삼삼개를 만들어 전래동요와 창작동요를 보급하고 있다. 어린이 노래모임 '굴렁쇠 아이들'은 어린이들이 부르는 어린이들의 노래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모임으로 각종 공연과 전래동요, 창작동요 음반작업에 참여해 왔다.

오는 31일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콘서트 '노래야 나오나라'는 그동안 주로 음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어린이들의 삶과 정서가 담긴 노랫말과 가락으로 사랑을 받았던 '막지 피력기'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여름무우 씨름무우' 등 주목할만한 노래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설집이개' '백구' '따오기' 등 어른들이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노래들도 함께 해 부모에게는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따뜻한 콘서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관객들이 직접 공연을 선정하고 유치함으로써 특별한 인천의 문화를 되살리겠다는 포부로 새롭게 창립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의 '문화수용자운동'인 문화바람 첫 공연이기도 해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최경숙 사무국장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바람이 되는 것이 바로 문화수용자운동"이라며 "문화바람의 첫 공연인 만큼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서트를 유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바람이란 할 일중심의 회비를 내고 일종의 공연, 전시회 등을 유치하는 회원을 말한다. 이번 '노래야 나오나라' 중요콘서트를 시작으로 올해 1년 동안 5차례의 문화바람 공연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콘서트의 관람료는 문화바람 회원은 무료이며 미리 예약해야 하고, 비회원의 경우 1층 객석 2만 원, 2층 객석 1만5천원이다. 또한 10인 이상 단체관람이거나 가족관람의 경우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442-8017

3.4월, 여머는2 할인혜택 행사!

문화바람의 창립자입니다 인천공연!!

일시 2006.5.23-6.8 평일 8시/토,일,공휴일 4시,7시
장소 남구학산소극장 기획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예약문의 032.442.8017 http://www.peopleart.org

- event1**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초기 예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공연 관람이 가장 좋은 자리를 우선 배정해 드립니다. (가열, 나열, 알파석부터 중간까지)
- event2** 예매를 하시는 모든 관객분에게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3명 예매시 : 80,000원, 4명 예매시 : 100,000원
5명 예매시 : 120,000원. *참고, 일반 기준.)
- event3** 예매시 연인,친구,가족 등 함께 오시는 분들과 나눌 **사연**을 기재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공연 중 배우를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참고, 3월 1일부터 6월 7일 까지)
- event4** '문화바람' **신규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가 드리는 소정의 선물과 회원전용 프리티켓(Free Ticket) 2매를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1. 문화바람 회원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가 기획한 **모든 공연**을 **80% 할인**하여 프리티켓(Free Ticket)을 이용 무료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매월 1만원을 납부하는 문화바람 회원들의 명의로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 휴비 미납 및 연체시 프리티켓(Free Ticket) 사용이 정지됩니다.)

이 공연은 문화바람 회원들이 직접 공연을 선정하고 유치함으로써 특별한 인천의 문화를 되살리겠다는 포부로 새롭게 창립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의 '문화수용자운동'인 문화바람 첫 공연이기도 해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최경숙 사무국장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바람이 되는 것이 바로 문화수용자운동"이라며 "문화바람의 첫 공연인 만큼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서트를 유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바람이란 할 일중심의 회비를 내고 일종의 공연, 전시회 등을 유치하는 회원을 말한다. 이번 '노래야 나오나라' 중요콘서트를 시작으로 올해 1년 동안 5차례의 문화바람 공연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콘서트의 관람료는 문화바람 회원은 무료이며 미리 예약해야 하고, 비회원의 경우 1층 객석 2만 원, 2층 객석 1만5천원이다. 또한 10인 이상 단체관람이거나 가족관람의 경우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442-8017

2006년 6월 17일, 문화바람 회원들이 직접 공연을 선정하고 유치함으로써 특별한 인천의 문화를 되살리겠다는 포부로 새롭게 창립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의 '문화수용자운동'인 문화바람 첫 공연이기도 해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최경숙 사무국장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바람이 되는 것이 바로 문화수용자운동"이라며 "문화바람의 첫 공연인 만큼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서트를 유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바람이란 할 일중심의 회비를 내고 일종의 공연, 전시회 등을 유치하는 회원을 말한다. 이번 '노래야 나오나라' 중요콘서트를 시작으로 올해 1년 동안 5차례의 문화바람 공연이 이어질 계획이다.



[00] 000 000 00 0000. 0000 00 10 000 000000 0000 000 000 00 0000 000 000. 000 '000'0 000 00000, 000000 000 0000 0000 00 000.

0000 000000000000000 000 00000000000000 <0000>0 0 00 0 0000 <000000000 0>0 000. 00000 000000 000 00, 000 000000, 0000 0 0000 0000 00, 0 0, 0000 0000 0000. 0, 000 0000 00 000 00 0000000 0000 00 000. 0 00 0000 0000000 00 "000"0000 000 000 00.

2006000 2016000 <0000000000>0 000 000 00 0 10000 00 000000, 000 0 0000 00, 000 0000 00, 00 000 000 0000000 00000.

00. H 00 00000 0000 000 000 00 00 00 000 00 0000.



[00]000000 0000 00 00000'000'. 00 0000 0 1000 0000 00000, 0 0 8400 000000.





[00]H0 00 000 000. 0000 00000 0000 00 0000 000 0 0 000 000 000000.



[00]000 0000 200 0000 00000 00000 000 0000. 00 0 00000 00, 000 00 0000 0000 0000 00000.

0000 90 150 0000 0000. (00, 00000000 0000 210000 00000) 0000000 0000 0000

<p>□□ □□ □□□□</p>	<p>[□□ □□] □ □□□ □□ □□</p>	<p>□□ □□ 19□ 30□ 4□(8. 29 – 9. 19)</p>	<p>□□□□</p>
	<p>□□ □□□□ □□ □□</p>	<p>□□ □□ 15□ 6□(10. 13 – 11. 17)</p>	<p>□□□□□ □□ □□□</p>
	<p>Book·□□□: □□ □□ □□□ □□□□□.</p>	<p>□□ □□ 19□ 6□(10. 16 – 11. 20.)</p>	<p>□□□□</p>
	<p>□□□ □□□□ □□ □□</p>	<p>□□ □□ 19□ 30□ 6□(11. 2 – 12. 7)</p>	<p>□□□□ ×□□□□</p>
<p>□□□□ □□□□</p>	<p>□□□□ □□: □□ □□□□ □□ □□</p>	<p>□□ □□ 19□ 7□(10. 8 – 11. 19)</p>	<p>□□□□□□□□</p>
	<p>□□□□□□: □□□□ □□□□ □</p>	<p>□□ □□ 19□ 30□ 8□(10. 5 – 11. 23)</p>	<p>□□□□□□□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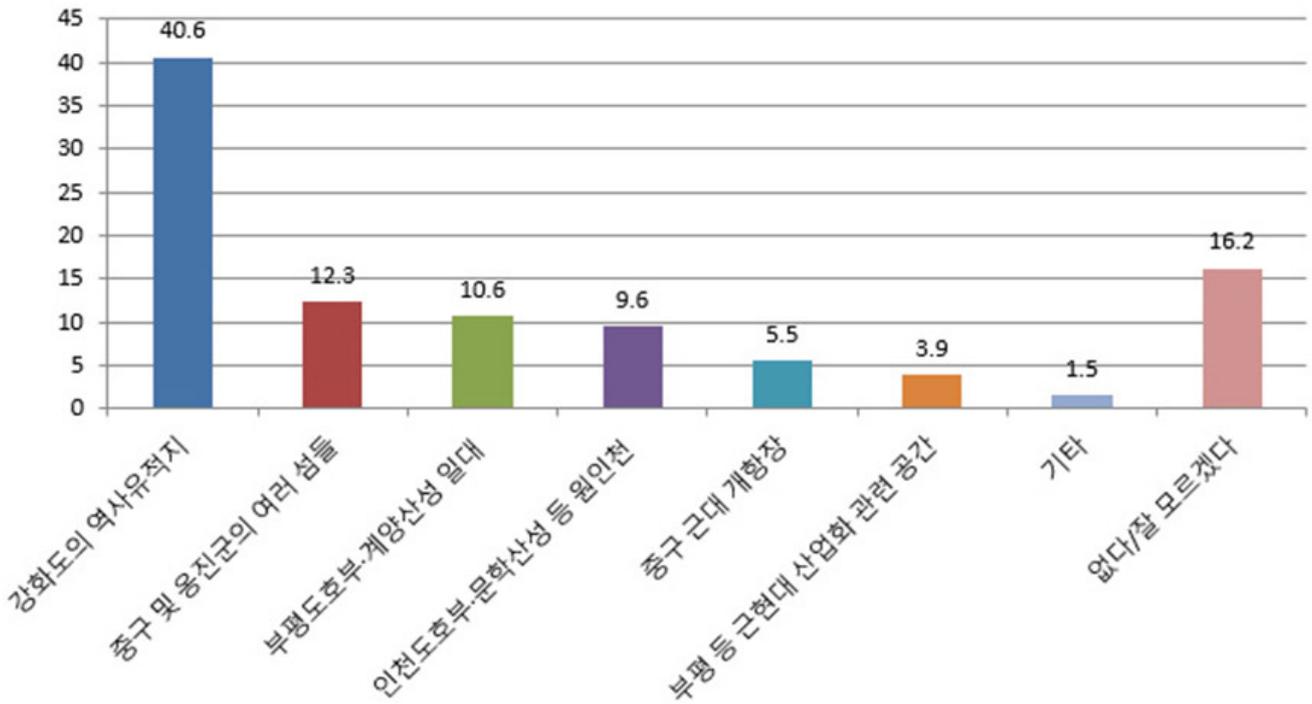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1,0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3%(□□ □□□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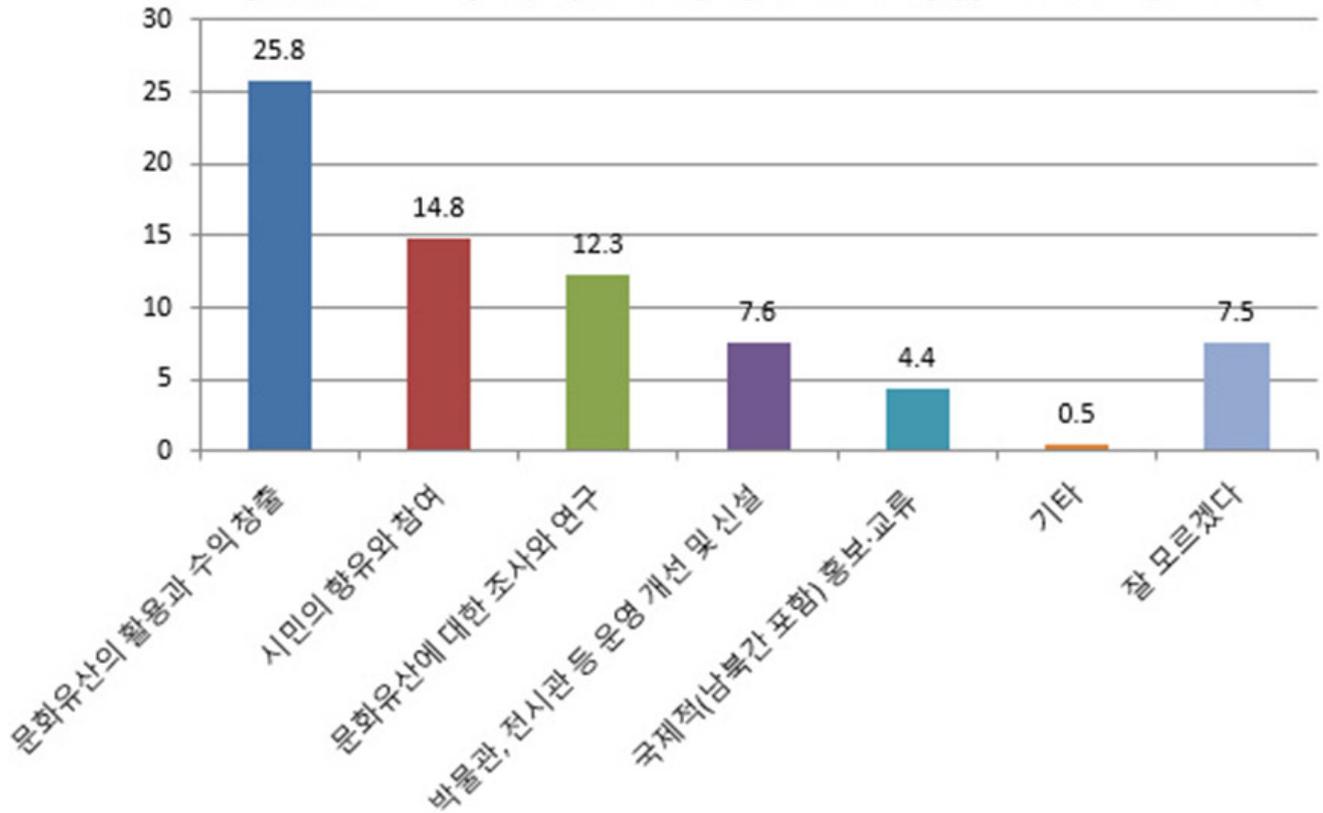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유적 및 공간



2.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유적 및 공간

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유적 및 공간으로 가장 많이 꼽힌 곳은 강화도의 역사유적지(40.6%)로, '강화도의 역사유적지(안남사, 강화도박물관 등)'가 꼽혔다. 이어 부평도호부·계양산성 일대(10.6%), 인천도호부·문학산성 등 원인천(9.6%), 중구 근대 개항장(5.5%), 부평 등 근현대 산업화 관련 공간(3.9%), 기타(1.5%), 없다/잘 모르겠다(16.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문화유산 정책분야



□□ 3.00 □□□ □□□□ □□ □□□□ □□ □□

□□□□□ □□□ □□□ □□□ □□ □□□ □□□□ □□□□ □□□□ 74.3%(□□ □□□ □□ 14.3%, □□□ □□ 60.0%) □□□□ □□□ □□□ □□ □□□□ □□□□□□ □□ □□□ □□□ □□□□. □□□ □□ □□□ □□□□ □□ □□□ □□□□ □□□ □□ 50.5% □ '□□□□□□ □□' □□ □□□ □□ □□□ □□ □□□ □□ □□□□□□□ □□□ □□□ □□□ □□□ □□.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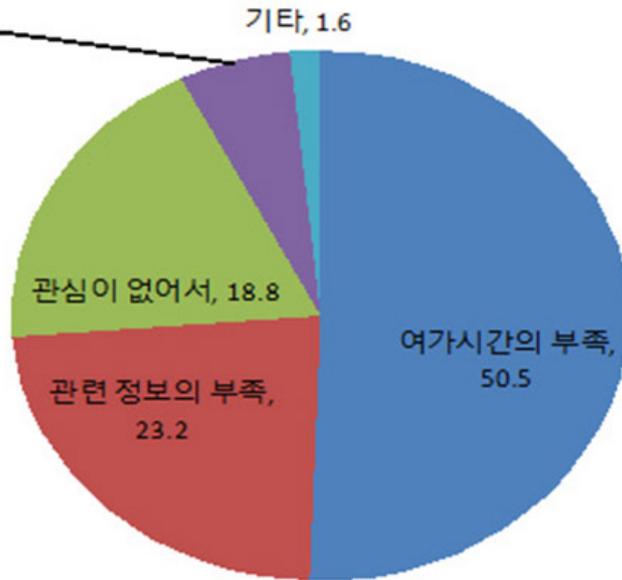


표 4.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

본 연구는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이유는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50.5%에 달하였다. 이어 '관련 정보의 부족'이 23.2%, '관심이 없어서'가 18.8%, '역사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이 5.8%, '기타'가 1.6%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이유는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50.5%에 달하였다. 이어 '관련 정보의 부족'이 23.2%, '관심이 없어서'가 18.8%, '역사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이 5.8%, '기타'가 1.6%로 나타났다.

표 4.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

본 연구는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이유는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50.5%에 달하였다. 이어 '관련 정보의 부족'이 23.2%, '관심이 없어서'가 18.8%, '역사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이 5.8%, '기타'가 1.6%로 나타났다.

<2018 PUMP>

8월. 이 달은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이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이다.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 20, 2020년 7월 20일(금)에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2020년 7월 20일 '2018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PUMP)'의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이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50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50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이다,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이다.”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이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이다.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2018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PUMP)의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Viewpoints Method)'의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Mary)



〈자옥 페미 안녕?〉 (2017), 디지털프린트

2-1. 00 00

00 000 0000 000 00 000000 00 0000 0000 000 000 00 00 0 00000 '0000000
000'00 00000 00000 00 00000 00 00000. 000000 0000 0000 0000 00 0 00
00, 0000 00 00000 000000 0000 00 00000 00 0000 00 0000 '00'0 '00', 00
0 '00'0 00000 0000 0000000. 0 00000 0 00000 00 00 000000000 0000 00000
00000 000000 0000 000000 00 0000. 00000 00 0000 00 00 0000 0 0000 0000000,
0000 0 00 0 000000 00000 00 0000 0 0 0000 0000 000000000 0000. 0000 00 0
00 0000, 00 00 00000 00000 00000 0 0000 000000 00 0000 0 00 0000 000000
0 0000000 0000 0000. 0 00000 0000 00 0000 00, 0000 00000 0000 00 00, 00
00 00000 0000 0000 0000. 0 00000 00 0000 0 0000000 0000 00 0000 0 0 00000.
0000 0000 0000 00 00000 0000, 00 0000 00 00 0000 0000 0000000 0000 00000 0
0 00000 00000 0000 00 0 0000. 00 0000 0000 00000 0000 0 0000 00 <0000000>
0 0000 000000.



<지옥에서 올라온 중북페미마녀 송아영씨의 씬나는 파티> 무대 세팅



0000같은 남근다발

<0000> 000 000 00 000 000000 00000. '0000000 0000'0000 00 000000 00000 00 00000. 0000000 00000 00000 0000

이 공연은 2017년 12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 <코엑스 1호관 1층 코엑스홀>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공연되었습니다. DJ는 DJ 김민준이 맡았으며, MC는 MC 김민준이 맡았습니다. 공연은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2017년 12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 <코엑스 1호관 1층 코엑스홀>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공연되었습니다. DJ는 DJ 김민준이 맡았으며, MC는 MC 김민준이 맡았습니다. 공연은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코엑스 1호관 1층 코엑스홀에서 열린 공연”의 모습
[Youtube 링크 ▶](#)

3. 결론

이 공연은 2017년 12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 <코엑스 1호관 1층 코엑스홀>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공연되었습니다. DJ는 DJ 김민준이 맡았으며, MC는 MC 김민준이 맡았습니다. 공연은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2017년 12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 <코엑스 1호관 1층 코엑스홀>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공연되었습니다. DJ는 DJ 김민준이 맡았으며, MC는 MC 김민준이 맡았습니다. 공연은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인천합창의 궤적> 전시

인천합창은 2018년 11월 <인천합창의 궤적> 전시를 통해 10년 동안의 활동을 소개하고,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800여 점의 자료를 소개합니다. 전시를 통해 인천합창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합창의 궤적> 전시

이 전시를 통해 '인천합창'의 10년 역사를 소개하고,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시를 통해 인천합창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시를 통해 인천합창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영의, 엡윗 청년회.

1908년 '엡윗 청년회'를 창립한 김영의는 1908년 미국 시카고에서 창립된 감리교회 청년회이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유훈지명이 엡윗이었다. 1906년에 창립된 독립협회 해산 후 기존 내선교회 청년회로 승격되어, 엡윗청년회 활동이 확장된다. 엡윗청년회는 애국가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음악 활동을 전개했다. 엡윗청년회 음악부 주최 공연회 중 '아시안 피티널 음악부'도 두어 차례 공연, 방송된, 오프간 등을 가졌다.

1963년 12월 10일, 김영의는 서울에서 사망했다. 그의 유해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동 천주교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인천합창의 궤적> 전시 전경

□/ □□

□□□□□□ □□□□ □□, □□□□ □□□□ □□
 □□ □□□□□□ □□□□ □□□ □□ (D.M.A.)

YTN “□□□□ □□□□” □□

□□□□, □□□□. □□□□ □□

(□)□□□□ □□□□□□ □□

[□□□□ □□□□ ▶](#)

[□□□□ □□□□ ▶](#)

□□

□□□



'락캠프' 입구

락캠프는 30년째 서울에서 20년째 락 음악의 중심지로서, 락 음악의 '성지'로서 자리잡고 있다. 락 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락 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락 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락 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락캠프' 내부 전면



'락캠프' 내부 뒤쪽 이미지

락캠프는 락 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락 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락 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락 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인천문화재단 제공

이 글은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인천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오직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인천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오직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남(Kim Young Nam), 인천문화재단
 () 인천문화재단
 ()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항 갑문소리 녹음 ©안병진



십정동 재개발 현장의 소리 ©안병진

이 사진은 201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길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내리교회 종소리 녹음 ©안병진

이 프로젝트는 종소리 녹음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종소리의 질감과 공간감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Dolby Atmos DTX Headphone X와 Sonicteer를 사용하여, 종소리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종소리 녹음>은 종소리 녹음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종소리의 질감과 공간감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Dolby Atmos DTX Headphone X와 Sonicteer를 사용하여, 종소리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종소리 녹음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종소리의 질감과 공간감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있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있어.



강화 교동 무학리 은행나무의 소리 ©안병진

이제, 이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있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있어.

안병진 (Ahn Byung Jin)

1976년 11월 11일
서울 PD
영상감독

[소리, 영상 감독] (2013), [소리 영상 감독] (2013)
[영상 감독] (2014), [영상 감독] (2017),
[영상10, 감독] (2017), [영상 감독] (2018) 등
[Sound of Incheon] (2017), [영상] (2012) 등